

전남도청 우수 역시 전국 최강

시즌 마지막 대회 우수선수권서 김연준 2종목 우승 등 금 2·은 3 획득

전남도청 우수팀이 올시즌 마지막 전국 대회에서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전남도청 우수팀은 최근 충북 보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5회 전국학생우수선수권대회' 제4회 전국종별우수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김영준은 투로 남권에서 금메달, 남도 은메달, 남권 금메달을 따냈다. 장민규는 태극검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윤용진은 산타-59kg급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전남도청 장보근 우수팀 감독은 "힘들지만 열심히 따라와준 선수들 덕분에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다"며 "올 한 해 동안 믿고 따라와준 선수들과 전남도청, 전남체육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남우수협회장 윤병용 회장은 "올 마지막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면서 "내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올 동계훈련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 우수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 장애인 학생선수들 전국대회 메달 39개 수확

탁구 출전선수 4명 전원 금메달

조정 금 4·은 3·동 2로 종합 1위

광주장애인 학생선수들이 제15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메달 39개(금18, 은15, 동6)를 따냈다.

1일 광주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 대회에서 광주 탁구 선수 4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성우(광주 3년)는 탁구 고등부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고기준(광안 3년)과 팀을 이뤄 출전한 고등부 남자 복식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한승명(선운중 2년)과 김민찬(마재초 3년)도 초·중등부 남자 단식에서 각각 금메달을 1개를 추가했다.

조정 선수들의 선전도 눈길을 끌었다. 12명 선수가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 조정 부문 사·도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종목별로 분산 개최됐다. 광주 선수단은 지난 9월 베드민턴 종목에서 시작으로 3개월 동안 7개 종목에 출전했다.



제1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탁구 종목에서 전원 금메달을 획득한 광주시 선수단.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제1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경상북도 구미 개최될 예정이다.

일원에서 내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송혜수, 12년 만의 8강 힘 보탠다



광주도시공사 송혜수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 개막

제25회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가 1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열전을 시작한다.

32개 나라가 출전하는 이 대회는 19일까지 열리며 우리나라는 콩고, 튀니지, 덴마크와 함께 조별리그 F조에 편성됐다.

우리나라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년 파리 올림픽을 겨냥해 남녀 국가대표 모두 외국인 사령탑을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회에는 장인의 대한핸드볼협회 전무이사 임시 감독을 맡아 출전했다.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8강에 올랐던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는 2009년 중국 대회 6위 이후 12년 만에 8강 복귀를 노린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각 조 3위까지 오르는 결선리그에는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덴마크가 쉽지 않은 상대지만 1, 2차전 상대인 콩고,

튀니지와는 해를 만한다.

덴마크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결승에서 만나 우리나라가 승부던지기까지 치르는 '대혈투' 끝에 췌던 상대다.

당시 결승에 선수로 뛰었던 우선회가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 코치다.

8강 진출 여부는 이후 결선리그 결과를 통해 정해진다. 한국이 결선리그에 진출하면 E조에서 올라오는 팀들과 맞대결하는데 E조는 독일,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유럽 팀들로 구성됐다. 결선리그 조 2위까지 8강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별리그를 최대한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E조 팀들을 상대하는 결선리그에서도 최소한 2승 이상을 따내야 8강을 바라볼 수 있다.

류은희(헝가리 교리)와 이미경(일본 오모리) 등 외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국내 신인 드래프트 1순위 김소라(경남개발공사)와 송혜수(광주도시공사) 등 젊은 선수들도 대표팀의 8강 도전에 힘을 보탠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내년 호주오픈테니스 불참하나

“백신 맞아야 한다면 만나갈 것”

조코비치 부친 밝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2022년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조코비치의 부친 스텐 조코비치는 최근 세르비아 TV와 인터뷰에서 “이런 위협적인 조건이라면 아들은 호주오픈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비치의 부친이 언급한 ‘위협적인 조건’은 2022년 1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호주오픈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가리킨다.

조코비치는 그동안 자신의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공개하기를 꺼려왔고, 백신 접종 의무화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남자 단식에서 9번이나 우승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연패를 달성하는 등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대회에서 4연패와 통산 10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되는 조코비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코비치 자신도 지난달 인터뷰에서 “호주오픈과 관련해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다”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규정이 정해지면 그때 말하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2020년 대회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1월에 열렸고, 2021년 대회 때는 출전 선수들 전원을 호주 입국 후 2주 격리 조치했다.

2022년 대회를 앞두고는 출전 선수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12시간마다 볼이 바뀐다!

유체이탈자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2관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3관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유체이탈자
4관	연애 빠진 로맨스
5관	엔간토: 마법의 세계, 심계
6관	유체이탈자
9관	유체이탈자, 라스트 나잇 인 소호, 베네타, 이터널스
7관	세네케를, 라스트 나잇 인 소호, 태일이, 장르만 로맨스
8관	세네케를, 라스트 나잇 인 소호, 톨, 이터널스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Baritone Gilhoon Kim Recital

2021. 12. 19. (일)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어린이 무용 <루돌프>

2021. 12. 19. (일)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